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비교 (제1보) -재킷을 중심으로-

이 경 립* · 박 숙 현†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석사과정*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Comparison of the Difference between Body Perception and Satisfaction by Consumers' Jacket Preference and Wearing Style

Kyung-Lim Lee* and Sook-Hyun Park†

Master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2003. 11. 6. 접수: 2004. 1. 16.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comparison of preference style and wearing style of jacket by body perception and satisfaction. This research was done by a survey metho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ANOVA, Two-Way ANOVA and Duncan's 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subjects were less satisfied with larger or thicker girth of upper body. The subjects were less satisfied with thicker upper arm, lower arm, waist and lower abdomen. The subjects were less satisfied with larger or thicker girth of lower body. The subjects were less satisfied with thicker hips, thighs, calves, ankles, and longer crotch length. 2) The subjects with the highest dissatisfaction about neck thickness and length prefer jacket with collar but wear jacket without collar. The subjects with the smallest bust wear jacket with short lapel. The subjects with wider shoulder wear jacket with narrower shoulder width. The subjects with more dissatisfaction about shoulder incline wear raglan sleeve jacket. The subjects with wider hips wear hip line length jacket.

Key words: body perception(신체인지도), body satisfaction(신체만족도), preference style(선호스타일), wearing style(착용스타일).

I. 서 론

인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은 특정한 시대의 미적 기준과 함께 변화되어오고 있으며, Fallon과 Rozin¹⁾에 따르면 개인은 이러한 사회적 기준에 부합 되도록 자신들을 변화시키려 노력한다고 하였다. 또

* 교신저자 E-mail : shpark@star.ks.ac.kr

1) A. E. Fallon and P. Rozin,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body shap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94 (1990), pp. 102-105.

2) D. R. Danielson, "The changing figure ideal in fashion illustr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8, No. 1 (1989), pp. 35-48.

한 Danielson²⁾에 따르면 개인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신체적인 이상형도 당대의 시대정신에 따라서 시대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과거 '80년대에는 여성의 남성화 경향으로 어깨가 넓고 근육질의 크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여성이 이상형이었다. 그러나, '90년대를 거쳐 현재에는 영상 대중매체나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양한 패션 문화와 접하고 있어, 패션쇼 등에서 보여지는 극도로 마르고 키가 크며 다리가 긴 체형인 모델과 같은 이미지를 가진 여성이 이상형이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상형과 일치하지 못하고 자신의 실제 체형과 사회적인 이상형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여성의 경우 이상형에 근접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여러 방법 중 신체 불만족 부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의복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의복은 인체에 착용됨으로써 신체보호나 장식 등의 역할도 해야 하지만 현대에는 자신의 신체에 잘 어울리고 자신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감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 여성들은 대부분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다수의 여성들이 자신의 체형 부위별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닌 자기 체형의 단점을 커버하는 스타일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유행의 다양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스타일 중 자신의 선호스타일 및 체형에 적합한 기성복을 선택하기가 과거보다는 좀 더 쉬워졌다. 그러나 기성복이 연령별 표준체형을 기준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표준체형에 가깝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적합한 기성복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사이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재킷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밝혀, 이러한 의복을 주로 착용하는 여성들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의복설계, 패턴제작 및 디자인개발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신체인지도 및 신체만족도

신체인지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인식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Kefgen과 Touchie-Specht³⁾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란 스스로의 신체분석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의식이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신체적 영상을 가진 사람은 소수라고 밝히고 있다.

Kwon과 Parham⁴⁾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뚱뚱하다고 인지한 경우와 날씬하다고 인지한 경우의 신체인지도에 따라 의복을 통한 혜택과 기능추구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는데, 미만하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편안한 의복기능과 개성을 추구한 반면 날씬하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패션기능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Mable, Balance와 Galgan⁵⁾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왜곡정도가 1% 미만이지만 여성은 자신의 체중보다 15% 정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20대 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형을 비교한 정재은⁶⁾의 연구, 개인적 인식에 따른 인지체형과 실제체형을 비교한 정옥임⁷⁾의 연구 및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행동과의 상관성을 연구한 박재경, 남윤자⁸⁾

3) M. Kefgen and P. Touchie-Specht,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4th ed. (New York: Macmillan, 1986), pp. 167-180.

4) Y. H. Kwan and E. S. Parham, "Effects of state of fatness perception on weight conscious women's clothing practic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2, No. 4 (1994), pp. 16-21.

5) H. M. Mable, W. Balance and R. Galgan, "Body image distortion and dis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63 (1986), pp. 907-911.

6) 정재은,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7) 정옥임,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체형과 실제체형과의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권 1호 (1993), pp. 153-162.

8) 박재경, 남윤자,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 행동과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권 8호 (1999), pp. 1149-1160.

의 연구에 대한 결론을 종합해 보면 여성들은 매우 다른 것을 이상형으로 삼고 있으며, 여성들의 인지체형과 실제체형 중 신체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인지체형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정재은, 남윤자⁹⁾의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가 실제 측정치보다는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더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신체만족은 실제 자신의 체형보다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체형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전경숙¹⁰⁾의 연구에서는 이를 자신의 신체적 상태에 의한 것이 보다 심리적 왜곡현상에 의한 것이라 보고 있다.

Cash, Winstead와 Janda¹¹⁾에 의하면 미국의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34%가, 여성은 38% 정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불만족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진숙¹²⁾의 신체만족도와 기성복의 만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특정 부위에 관련된 기성복에 대한 만족이 그 부위에 대한 신체만족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이 의복 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황진숙¹³⁾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만족이 특정 의복의 추구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정숙, 임숙자¹⁴⁾, 박우미, 고유미¹⁵⁾의 연구 결과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몸에 꼭 맞는(tight) 스타일을 선호하였고, 덜 만족할수록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 무위를 보완할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2. 의복스타일

의복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의복스타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로서 Winakor와 Navarro¹⁶⁾는 스타일이란 의복의 특징적인 형태로 다른 스타일과 식별될 수 있는 선, 형태 또는 비율로 묘사되어지며, 의복디자인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Greenwood¹⁷⁾는 의복디자인 요소에는 스타일, 색상, 직물이 있는데 그 중 스타일이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라고 하였다.

의복의 선호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로 이선재¹⁸⁾에 의하면 의복에 대한 선호는 민족의 전통, 사회적 배경, 경제적 여건 또는 유행경향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의 신체적인 조건, 사회적 역할, 연령, 성 차 또는 감정적인 경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나영은¹⁹⁾은 실제 자기이미지보다는 이상적인 자기이미지가 의복스타일 선호와 더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 장은영²⁰⁾과 이명희, 김현주²¹⁾에 따르

- 9) 정재은, 남윤자,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1992년도와 1997년도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3권 1호 (1999), pp. 159-169.
- 10) 전경숙, "체형의식에 따른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여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복식* 52권 3호 (2002), pp. 75-85.
- 11) T. F. Cash, B. M. Winstead and L. H. Janda, "The great american shape up," *Psychology Today*, Vol. 20, No. 4 (1986), pp. 30-37.
- 12) 황진숙, "신체만족도와 기성복에 대한 만족의 상관관계연구," *복식* 34권 (1997), pp. 183-193.
- 13) 황진숙,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권 3호 (1998), pp. 293-302.
- 14) 임숙자, "의복행동과 지능, 사회 경제적 지위 및 채색과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권 2호 (1986), pp. 37-50.
- 15) 박우미, 고유미,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착의 행동과의 관계 연구: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민족문화예술연구소 논문집* 3권 (1994), pp. 105-124.
- 16) Winakor and Navarro,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s to women's clothing styl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5 No. 2 (1987).
- 17) Greenwood, *Fashion and marketing*, (New York: Macmillan, 1978).
- 18) 이선재, "한국여성의 가치관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권 1호 (1987), pp. 29-42.
- 19) 나영은, "의복 스타일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사성과 친숙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20) 장은영, "의류상품 이미지에 의한 의복 선택 모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21) 이명희, 김현주, "의복스타일 이미지 선호와 자기이미지와와의 관계 연구," *복식* 33권 (1997), pp. 41-53.

면 이상적인 자기이미지 및 현실적인 자기이미지와 의복 선호스타일과의 관계는 연령층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승희, 임숙자²²⁾는 심리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에 따라 의복스타일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체형에 따른 의복의 실제 착용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 중 박선영²³⁾은 의복 선호스타일이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측면과 상호 관련이 있으며, 의복 착용스타일은 연령 및 신체적 조건 등의 변인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박재경, 남윤자²⁴⁾에 의하면 의복의 실제 착용스타일 여부를 결정할 때 상의는 유행 및 선호 취향에 의해 착용이 결정되나 하의는 신체 크기에 대한 인식이 착용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 신체인지도와 신체만족도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 신체인지도와 신체만족도간에 상관성이 있는가?
- 연구문제 3 : 재킷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고, 조사항목 및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의 차이 및 상관성 검증을 위한 조사 문항은 키를 포함한 상·하반신 부위별 19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의 19항목 중 17항목은 박재경, 남윤자²⁵⁾, LaBat와 Delong²⁶⁾의 연구 중 부위별 신체 항목에 대해 참고하

였으며, 허리길이와 험 나온 정도는 본 연구를 위해 추가된 항목이다.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 비교를 위해 선정된 정장 재킷은 니트나 캐주얼 의복에 비해 체형에 따라 맞춤 정도(fit)가 가장 잘 나타나는 아이템으로써 의복 부위별 11개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재킷에 대한 조사 방법은 조사 시기의 유행과는 상관없이 의복 각 부위별 선호와 착용에 디자인이 통제된 동일한 스타일로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형태 2~3개를 선정하여, 동시에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과 실제 착용하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정장 착용과 사회활동 경험이 많아 체형에 적합한 디자인 선별력이나 착용감 등에 대해 가장 잘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산시내 20대 후반에서 30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예비설문은 2003년 2월 24일부터 2003년 3월 2일까지 50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는데, 실시 후 문제가 되는 응답자의 최종 학력 측정문항과 재킷스타일의 선정 등에 대해 수정·보완을 거친 후 본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예비설문 후 2003년 3월 17일부터 2003년 4월 20일까지 총 350부를 배부하여 326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에서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연구대상에서 벗어나는 15부를 제외한 총 311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10.0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연구대상의 신체인지도와 만족도간의 평균차이 및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t*-test 및 Pearson의 상관

22) 이승희, 임숙자, "유행선도력에 따른 소비자의 추구혜택 및 의복스타일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7호 (1998), pp. 942-951.

23) 박선영, "성인 여성의 신체이미지와 의복 착용 스타일: 비만 수준과 연령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24) 박재경, 남윤자, *Op. cit.*, pp. 1149-1160.

25) *Ibid.*, pp. 1149-1160.

26) K. L. LaBat and M. R. Delong,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8, No. 2 (1990), pp. 43-48.

〈표 1〉 조사항목 및 평가방법

조사내용	항목 수	조사항목 및 평가방법
신체인지도	19항목	키(①), 상반신(②~⑫), 하반신(⑬~⑲)으로 구분 Likert 5점 척도 (1=전혀 아니다, 3=보통이다, 5=아주 그렇다) 항목 : ① 키가 크다, ② 목이 굵다, ③ 목이 길다, ④ 어깨가 넓다, ⑤ 어깨가 솟은 편이다, ⑥ 가슴이 크다, ⑦ 팔이 길다, ⑧ 위팔이 굵다, ⑨ 팔뚝이 굵다, ⑩ 허리가 굵다, ⑪ 허리가 길다, ⑫ 아랫배가 나왔다, ⑬ 힘이 넓다, ⑭ 힘이 나왔다, ⑮ 밑위가 길다, ⑯ 다리가 길다, ⑰ 허벅지가 굵다, ⑱ 종아리가 굵다, ⑲ 발목이 굵다.
신체만족도	19항목	키(①), 상반신(②~⑫), 하반신(⑬~⑲)으로 구분 Likert 5점 척도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5=아주 만족한다) 항목 : ① 키, ② 목굵기, ③ 목길이, ④ 어깨너비, ⑤ 어깨경사, ⑥ 가슴크기, ⑦ 팔길이, ⑧ 위팔굵기, ⑨ 팔뚝굵기, ⑩ 허리둘레, ⑪ 허리길이, ⑫ 아랫배 나온 정도, ⑬ 힘너비, ⑭ 힘 나온 정도, ⑮ 밑위길이, ⑯ 다리길이, ⑰ 허벅지굵기, ⑱ 종아리굵기, ⑲ 발목굵기
재킷 선호 · 착용 스타일	11항목	① 칼라유무 칼라 있는 형, 칼라 없는 형
		② 칼라너비 좁은 형, 기본형, 넓은 형
		③ 칼라라펠길이 긴 형, 기본형, 짧은 형
		④ 어깨너비 실제 어깨 너비보다 좁은 형, 실제 어깨너비, 실제 어깨 너비보다 넓은 형
		⑤ 가슴라인 가슴 라인 강조형, 가슴 라인 무시형
		⑥ 소매형태 set in sleeve, raglan sleeve
		⑦ 허리형태 벨트라인으로 절단된 형, 벨트라인 없이 연결된 형
		⑧ 허리위치 high waist, normal waist, low waist
		⑨ 재킷길이 허리길이, 허리와 힙 중간길이, 힘이 떨어지는 길이
		⑩ 실루엣 인체 라인 드러내는 형, 인체 라인 무시형
		⑪ 여밈형태 싱글 여밈, 더블 여밈

분석, 재킷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의 차이 비교를 위한 다변량분산분석(MANOVA) 및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평균검정으로 Duncan's 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신체 각 부위별 인지도와 만족도간의 평균 비교

신체인지도와 만족도간의 t-test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인여성의 신체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목굵기 및 어깨경사를 제외한 상·하반신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평균이 2.60~3.34로 '보통이다'에 가깝게 분포되

어 있어, 신체 각 부위에 대해 대체로 보통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신체만족도 역시 아랫배 나온 정도 및 허벅지 굵기를 제외한 상·하반신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평균이 2.50~3.12로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 정도가 보통이었다.

전반적인 신체인지도와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키, 상반신의 목굵기, 어깨경사, 위팔굵기, 팔뚝굵기, 허리둘레 및 아랫배 나온 정도와 하반신에서는 밑위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인지도와 만족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반신의 목굵기 및 어깨경사에서는 인지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키, 위팔굵기, 팔뚝굵기, 허리둘레 및 아랫배 나온 정도에서는 인지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

〈표 2〉 신체인지도와 만족도간의 t-test

신체인지도 항목	신체만족도 항목	인지도		만족도		t
		M	S.D	M	S.D	
키가 크다	- 키	2.85	.99	2.65	1.05	3.95 ***
상반신	목이 굵다	2.54	.94	3.12	.81	-6.82 ***
	목이 길다	2.93	.86	3.02	.89	-1.60
	어깨가 넓다	2.88	1.04	2.81	.85	.88
	어깨가 솟은 편이다	2.32	1.00	2.87	.78	-7.30 ***
	가슴이 크다	2.60	1.08	2.53	.96	1.14
	팔이 길다	2.97	.92	2.95	.79	.23
	위팔이 굵다	3.19	1.01	2.52	.99	6.63 ***
	팔뚝이 굵다	2.99	1.08	2.61	1.00	3.60 ***
	허리가 굵다	2.98	1.09	2.57	1.04	3.84 ***
	허리가 길다	2.76	.93	2.73	.87	.39
아랫배가 나왔다	- 아랫배 나온 정도	3.14	1.02	2.40	1.06	7.09 ***
하반신	힙이 넓다	3.09	1.04	2.59	.94	5.43 ***
	힙이 나왔다	2.94	.92	2.69	.82	3.53 ***
	발뒤가 길다	2.88	.76	2.76	.71	1.76
	다리가 길다	2.82	.91	2.56	1.03	4.85 ***
	허벅지가 굵다	3.34	1.06	2.37	1.07	9.03 ***
	종아리가 굵다	3.05	1.08	2.50	1.06	5.21 ***
	발목이 굵다	2.60	1.16	2.83	1.07	-2.06 *

* $p < .05$, *** $p < .001$.

로 나타났다. 즉, 상반신의 들레 항목은 대부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하반신의 힙너비, 힙 나온 정도, 다리길이, 허벅지굵기 및 종아리굵기는 인지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항목인 반면, 발목굵기는 인지도에 비해 만족도가 조금 높은 항목이었다. 즉, 발목굵기를 제외한 하반신의 들레 및 너비 항목도 대체로 인지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대 후반과 30대 성인 여성들은 상·하반신의 들레 및 너비 항목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2. 신체 각 부위별 인지도와 만족도간의 상관성

키 및 상반신 각 부위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의 상관성은 〈표 3〉으로 나타내었다. 키 및 상반신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간의 전반적인 상관성을 살펴보면 어깨경사를 제외한 다수의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 상관이 나타난 항목으로 '키가 크다 - 키'에서는 다소 높은 상관이 나타나 키가 크다고 인지할수록 만족하였다. '목이 길다 - 목길이', '가슴이 크다 - 가슴크기', '팔이 길다 - 팔길이' 및 '팔이 길다 - 키'에서도 정적으로 낮은 상관이 나타나, 목이 길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목길이

〈표 3〉 신체인지도와 만족도간의 상관성 (키, 상반신)

인 지 도	만족도											
	키	목 굵기	목 길이	어깨 너비	어깨 경사	가슴 크기	팔 길이	위팔 굵기	팔뚝 굵기	허리 둘레	허리 길이	아랫배 나온 정도
1	.62 ***	.12 *	.18 **	-.02	-.06	-.02	.29 ***	.10	.17 **	-.01	.09	.01
2	-.02	-.46 ***	-.38 ***	-.22 ***	-.13 *	-.02	-.09	-.16 **	-.14 *	-.26 ***	-.05	-.12 *
3	.18 **	.27 ***	.35 ***	.15 **	.07	-.11 *	.15 **	.14 *	.18 **	.21 ***	.00	.08
4	.21 ***	-.09	-.08	-.34 ***	-.16 **	.00	.19 **	-.16 **	-.03	-.16 **	-.03	-.09
5	.06	-.04	-.08	-.12 *	-.09	-.08	-.04	-.03	.04	-.07	-.04	.01
6	-.03	-.12 *	-.15 **	-.04	-.06	.42 ***	-.10	-.06	-.10	-.02	.02	-.04
7	.33 ***	.06	.06	-.02	.05	-.06	.35 ***	.15 **	.17 **	-.03	.07	.11
8	-.10	-.13 *	-.15 **	-.17 **	-.09	.00	-.30 ***	-.56 ***	-.46 ***	-.27 ***	-.18 **	-.19 **
9	-.06	-.14 *	-.16 **	-.10	-.04	.10	-.23 ***	-.46 ***	-.58 ***	-.22 ***	-.14 *	-.18 **
10	.01	-.20 ***	-.26 ***	-.16 **	-.16 **	.01	-.09	-.31 ***	-.27 ***	-.57 ***	-.19 **	-.46 ***
11	.06	-.00	.03	-.07	-.15 **	-.19 **	-.13 *	-.04	.05	-.10	-.30 ***	-.16 **
12	.01	-.19 **	-.26 ***	-.15 **	-.09	.06	-.11	-.28 ***	-.27 ***	-.45 ***	-.22 ***	-.56 ***

* $p < .05$, ** $p < .01$, *** $p < .001$.

인지도 : 1(키가 크다), 2(목이 굵다), 3(목이 길다), 4(어깨가 넓다), 5(어깨가 솟은 편이다), 6(가슴이 크다), 7(팔이 길다), 8(위팔이 굵다), 9(팔뚝이 굵다), 10(허리가 굵다), 11(허리가 길다), 12(아랫배가 나왔다).

에 만족하였고, 가슴이 크다고 인지할수록 가슴크기에 만족하였으며, 팔이 길다고 인지할수록 팔길이 및 키에 만족하였다. 부적인 상관성이 나타난 항목으로 '위팔이 굵다 - 위팔굵기', '팔뚝이 굵다 - 팔뚝굵기', '허리가 굵다 - 허리둘레' 및 '아랫배가 나왔다 - 아랫배 나온 정도'에서 다소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팔 및 팔뚝이 굵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위팔 및 팔뚝굵기에 불만족하였고, 허리가 굵다고 인지할수록 허리둘레에 불만족하였으며, 아랫배가 나왔다고 인지할수록 아랫배 나온 정도에 불만족하였다. 또한 '목이 굵다 - 목굵기', '어깨가 넓다 - 어깨너비' 및 '허리가 길다 - 허리길이'에서도 부적으로 낮은 상관성이 나타나, 목이 굵다고 인지할수록 목굵기에 불만족하였고, 어깨가 넓다고 인지할수록 어깨너비에 불만족하였으며, 허리가 길다고 인지할수록 허리길이에 불만족하였다. 따라서 상반신에서는 가슴 크기 항목을 제외한 둘레 및 너비 항목에서 크거나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하반신 각 부위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간의 상관성 결과는 〈표 4〉와 같다. 하반신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힙 나온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리길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벅지가 굵다 - 허벅지굵기', '종아리가 굵다 - 종아리굵기' 및 '발목이 굵다 - 발목굵기'에서 다소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허벅지, 종아리 및 발목이 굵다고 인지할수록 이와 같은 부위에 불만족하였다. 또한 '힙이 넓다 - 힙너비', '힙이 넓다 - 허벅지굵기' 및 '밀위가 길다 - 밀위길이'에서는 낮은 상관성이 나타나, 힙이 넓다고 인지할수록 힙너비 및 허벅지굵기에 불만족하였고, 밀위가 길다고 인지할수록 밀위길이에 불만족하였다. 반면 '다리가 길다 - 다리길이'에서는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리가 길다고 인지할수록

〈표 4〉 신체인지도와 만족도간의 상관성 (하반신)

인지도	만족도						
	힙너비	힙 나온정도	밑위길이	다리길이	허벅지굽기	종아리굽기	발목굽기
1	-.39 ***	-.13 *	-.21 ***	-.12 *	-.34 ***	-.28 ***	-.16 **
2	-.10	-.08	-.11	-.12 *	-.15 **	-.17 **	-.01
3	-.17 **	-.06	-.32 ***	-.12 *	-.18 **	-.15 **	-.13 *
4	.06	.14 *	.18 **	.53 ***	.18 **	.15 **	.15 *
5	-.29 ***	-.14 *	-.21 ***	-.26 ***	-.60 ***	-.40 ***	-.25 ***
6	-.23 ***	-.15 **	-.23 ***	-.21 ***	-.42 ***	-.55 ***	-.39 ***
7	-.13 *	-.06	-.18 **	-.10	-.21 ***	-.30 ***	-.54 ***

* $p < .05$, ** $p < .01$, *** $p < .001$.

인지도 : 1(힙이 넓다), 2(힙이 나왔다), 3(밑위가 길다), 4(다리가 길다), 5(허벅지가 굽다), 6(종아리가 굽다), 7(발목이 굽다).

다리길이에 만족하였다. 따라서 다리길이, 밑위길이 및 힙 나온정도를 제외한 하반신의 둘레 및 너비 항목에서도 크거나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가슴크기를 제외한 상반신과 하반신의 둘레 및 너비 항목에 대해 크거나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한 반면, 허리길이 및 밑위길이를 제외한 상·하반신 길이 항목에 대해서는 길다고 인지할수록 만족하였다. 또한 길이 항목은 너비 및 둘레 항목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관계수가 낮아 너비 및 둘레 항목에 비해 인지나 만족의 정도가 낮은 항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재킷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별 신체인지도와 신체만족도 차이 비교

재킷은 상반신뿐만 아니라 재킷길이에 따라 하반신의 힙이나 허벅지 부위에 걸쳐 착용되는 의복으로 상·하반신 중 재킷의 선호 및 착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신체인지도와 만족도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11개 항목 중 7개 항목(칼라유무, 칼라라벨길이, 어깨너비, 소매형태, 허리형태, 재킷길이, 실루엣)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재킷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 별로 신

체인지도와 만족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다변량분산분석 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선호 및 착용,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선호 및 착용에서 신체인지도와 만족도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사후평균검정으로 Duncan's test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나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선호와 착용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므로, 선호 및 착용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에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그래프로 비교·분석하였다(그림 1~그림 5).

1) 재킷 칼라 유무에 대한 선호·착용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재킷 칼라 유무 선호와 착용에 대해 〈표 5〉를 살펴보면 목굽기 및 목길이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 재킷 칼라 유무에 대해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도, 만족도 각각에 대한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에서 살펴보면 인지도와 만족도 중 목굽

〈표 5〉 재킷 선호 · 착용스타일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MANOVA

재킷 스타일	신체인지도	- 신체만족도	F	재킷 스타일	신체인지도	- 신체만족도	F		
칸라유무	선호	목이 굵다	- 목굵기	3.51 *	허리형태	선호	허리가 굵다	- 허리둘레	1.83
		목이 길다	- 목길이	1.91			허리가 길다	- 허리길이	1.60
		어깨가 넓다	- 어깨너비	.41		착용	허리가 굵다	- 허리둘레	3.37 *
	목이 굵다	- 목굵기	.67	허리가 길다			- 허리길이	1.22	
	착용	목이 길다	- 목길이	2.92		선×착	허리가 굵다	- 허리둘레	.34
		어깨가 넓다	- 어깨너비	.22			허리가 길다	- 허리길이	1.21
		목이 굵다	- 목굵기	3.25 *	선호		허리가 길다	- 허리길이	2.11
	목이 길다	- 목길이	4.47 *	협이 넓다		- 협너비	2.55 *		
	어깨가 넓다	- 어깨너비	.42	말위가 길다		- 말위길이	2.91 *		
칸라라펠길이	선호	키가 크다	- 키	.44	세킷길이	착용	허리가 길다	- 허리길이	.39
		목이 길다	- 목길이	2.94 *			협이 넓다	- 협너비	.87
		가슴이 크다	- 가슴크기	.84			말위가 길다	- 말위길이	.82
	착용	키가 크다	- 키	1.11		선×착	허리가 길다	- 허리길이	2.87 **
		목이 길다	- 목길이	.27			협이 넓다	- 협너비	.65
		가슴이 크다	- 가슴크기	2.74 *			말위가 길다	- 말위길이	1.40
	선×착	키가 크다	- 키	1.04	선호	가슴이 크다	- 가슴크기	.43	
		목이 길다	- 목길이	1.66		허리가 굵다	- 허리둘레	.01	
		가슴이 크다	- 가슴크기	1.13		협이 넓다	- 협너비	.58	
소매형태	선호	어깨가 넓다	- 어깨너비	1.99	실루엣	선호	협이 나왔다	- 협 나온 정도	2.42
		어깨가 솟은 편이다	- 어깨경사	.27			착용	가슴이 크다	- 가슴크기
	착용	어깨가 넓다	- 어깨너비	.17				허리가 굵다	- 허리둘레
		어깨가 솟은 편이다	- 어깨경사	3.17 *		협이 넓다		- 협너비	.41
	선×착	어깨가 넓다	- 어깨너비	2.79		협이 나왔다	- 협 나온 정도	1.95	
		어깨가 솟은 편이다	- 어깨경사	.32		선×착	가슴이 크다	- 가슴크기	1.48
어깨너비	선호	어깨가 넓다	- 어깨너비	1.00	허리가 굵다		- 허리둘레	3.64 *	
	착용	어깨가 넓다	- 어깨너비	2.42 *	협이 넓다		- 협너비	1.03	
	선×착	어깨가 넓다	- 어깨너비	.99	협이 나왔다	- 협 나온 정도	.20		

*p<.05, **p<.01, 선×착 :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의 상호작용.

<표 6> 제킷 칼라 유무 선호·착용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Two-Way ANOVA

신체 부위별 항목		칼라유무	선호			착용			선×착
			M	S.D	F	M	S.D	F	
인지도	목이 굵다	칼라 있는 형	2.49	.96	.03	2.51	.95	.85	1.12
		칼라 없는 형	2.71	.86		2.73	.84		
	목이 길다	칼라 있는 형	2.93	.88	.08	2.92	.88	.35	.78
		칼라 없는 형	2.96	.80		3.05	.77		
만족도	목굵기	칼라 있는 형	3.11	.81	5.16 *	3.12	.78	1.12	6.51 *
		칼라 없는 형	3.19	.83		3.17	1.05		
	목길이	칼라 있는 형	3.04	.90	3.64	3.04	.87	3.94 *	8.94 **
		칼라 없는 형	2.94	.89		2.88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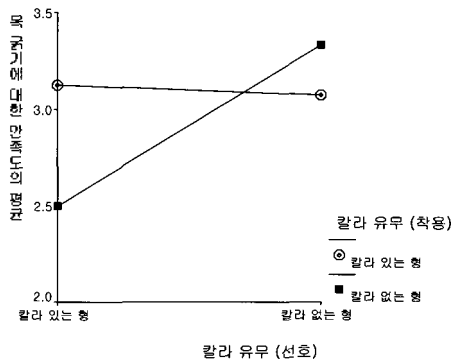
* $p<.05$, ** $p<.01$, 선×착: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의 상호작용.

기 및 목길이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칼라 유무에서는 칼라가 있는 제킷과 칼라가 없는 제킷 중 어떤 제킷을 선호하고 착용하는가 하는 것이 서로 분리되어 선택되지 않고, 목굵기 및 목길이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선호와 착용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선호하는 제킷과 실제 착용하는 제킷이 동일한 제킷이거나 혹은 다른 제킷으로 선택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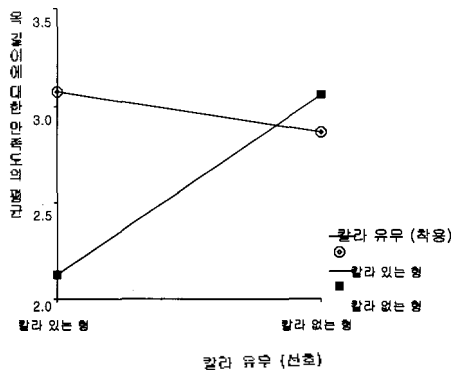
이와 같이 목굵기 및 목길이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선호와 착용스타일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목굵기 및 목길이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으로 구체적인 차이들을 살펴보면 <그림 1, 2>와 같다.

<그림 1, 2>에서 목굵기 및 목길이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정도로 나타난 경우 칼라 있는 제킷을 착용하였고, 그 중 목굵기 및 목길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으면 칼라 없는 제킷을 선호하지만 실제 착용으로는 칼라 있는 제킷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목굵기 및 목길이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한 증가경향을 나타낸 경우 칼라 없는 제킷을 착용하였고, 그 중 목굵기 및 목길이에 다소 만족하면 칼라 없는 제킷을 선호하였고 착용하기도 하였다.

칼라 있는 제킷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목굵기 및 목길이에 불만족하면, 칼라 있는 제킷을 선호하지만 칼라 없는 제킷을 착용하였다. 반면 칼라 없는 제킷



<그림 1> 제킷 칼라 유무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 따른 목굵기에 대한 만족도 차이.



<그림 2> 제킷 칼라 유무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 따른 목길이에 대한 만족도 차이.

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목굍기 및 목길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으면, 칼라 없는 재킷을 선호하지만 칼라 있는 재킷을 착용하였다.

따라서 목굍기 및 목길이에 가장 불만족하면 칼라 있는 재킷을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칼라 없는 재킷을 착용하였으며, 목굍기 및 목길이에 가장 만족하면 칼라 없는 재킷을 선호하였고 착용스타일로도 칼라 없는 재킷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2) 재킷 칼라라펠길이에 대한 선호 · 착용별 신체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재킷 칼라라펠길이 선호와 착용에 대해 <표 5>를 살펴보면 목길이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 재킷 칼라라펠길이의 선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가슴크기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 재킷 칼라라펠길이의 착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지도 및 만족도 각각을 <표 7>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도와 만족도 중 목길이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재킷 칼라라펠길이의 선호에서,

가슴크기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착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목길이에 대한 인지도가 어떤 길이의 칼라라펠을 선호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가슴크기에 대한 인지도는 어떤 길이의 칼라라펠을 착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Duncan's test 결과 목길이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서는 재킷 칼라라펠길이 선호 스타일간에 의미 있는 평균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반면, 가슴크기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서는 재킷 칼라라펠길이 착용 스타일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슴에 대해 평균 이하로 인지하였고, 그 중 가슴이 가장 작다고 인지하면 칼라라펠길이가 짧은 재킷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재킷 어깨너비에 대한 선호 · 착용별 신체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재킷 어깨너비 선호와 착용에 대해 <표 5>의 결과 어깨너비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 재킷 어깨너비의 착용에서만 유의하였다.

<표 7> 재킷 칼라라펠길이 선호 · 착용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Two-Way ANOVA

신체 부위별 항목		칼라라펠길이	선호			착용		
			M	S.D	F	M	S.D	F
인지도	목이 길다	긴 형	2.83	.90	3.11 *	2.92	.89	.46
		기본형	2.94	.79		2.94	.81	
		짧은형	3.06	.92		2.97	.96	
	가슴이 크다	긴 형	2.67	1.05	.04	2.67 A	1.05	3.78 *
		기본형	2.68	1.09		2.72 A	1.06	
		짧은형	2.39	1.07		2.20 B	1.08	
만족도	목길이	긴 형	3.08	.86	.90	3.09	.94	.16
		기본형	3.03	.92		2.99	.89	
		짧은형	2.90	.87		2.98	.86	
	가슴크기	긴 형	2.44	.97	1.20	2.46	.90	.25
		기본형	2.58	.98		2.57	.95	
		짧은형	2.56	.89		2.56	1.05	

* $p < .05$, Duncan's test 결과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집단을 문자로 표시 (A>B).

〈표 8〉 재킷 어깨너비 선호·착용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Two-Way ANOVA

신체 부위별 항목		어깨너비	선호			착용		
			M	S.D	F	M	S.D	F
인지도	어깨가 넓다	실제 어깨 너비보다 좁은 형	2.91	1.02	1.74	3.25 A	1.03	3.91 *
		실제 어깨 너비와 동일한 형	2.88	1.05		2.80 B	1.02	
		실제 어깨 너비보다 넓은 형	2.84	1.01		2.53 B	.97	
만족도	어깨너비	실제 어깨 너비보다 좁은 형	2.72	.99	.07	2.62	.89	1.50
		실제 어깨 너비와 동일한 형	2.84	.81		2.86	.85	
		실제 어깨 너비보다 넓은 형	2.79	.54		2.90	.61	

* $p < .05$, Duncan's test 결과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집단을 문자로 표시 (A>B).

인지도 및 만족도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표 8〉의 결과 인지도와 만족도 중 어깨너비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재킷 어깨너비의 착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깨너비에 대한 인지도가 어떤 어깨너비 스타일의 재킷을 착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깨가 다소 넓다고 인지하면 자신의 실제 어깨너비보다 좁은 어깨너비 스타일의 재킷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재킷 소매형태에 대한 선호·착용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먼저 〈표 5〉에서 재킷 소매형태 선호와 착용에 대해 살펴보면 어깨경사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 재킷 소매형태의 착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표 9〉에서 인지도, 만족도를 각각 살펴본 결과 인지도와 만족도 중 어깨경사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재킷 소매형태의 착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깨너비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깨경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소매형태의 재킷을 착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어깨너비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표 9〉 재킷 소매형태 선호·착용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Two-Way ANOVA

신체 부위별 항목		소매형태	선호			착용			선×착
			M	S.D	F	M	S.D	F	F
인지도	어깨가 넓다	set in sleeve	2.83	1.03	3.92 *	2.87	1.03	.32	5.09 *
		raglan sleeve	3.04	1.01		2.98	1.10		
	어깨가 숏은 편이다	set in sleeve	2.33	1.00	2.78	2.31	.99	.79	.65
		raglan sleeve	2.23	1.03		2.38	1.05		
만족도	어깨너비	set in sleeve	2.83	.83	.89	2.82	.84	.12	.01
		raglan sleeve	2.68	.92		2.71	.89		
	어깨경사	set in sleeve	2.90	.75	.22	2.90	.75	.01	.01
		raglan sleeve	2.71	.91		2.71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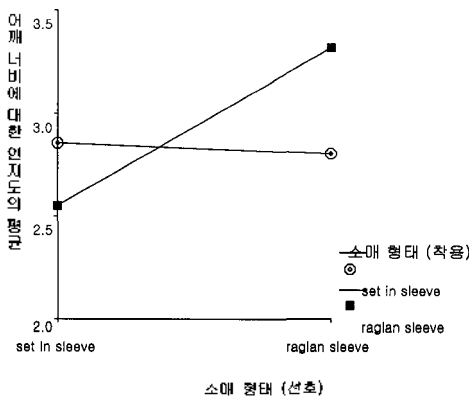
* $p < .05$, 선×착 :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의 상호작용.

재킷 소매형태에 대한 선호와 착용이 상호작용을 하여, 선호하는 재킷 소매형태와 실제 착용하는 재킷 소매형태가 동일하거나 혹은 다르게 선택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어깨경사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재킷 소매형태 착용스타일간 차이를 살펴보면, 어깨경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의 만족을 나타내었고, 그 중 어깨경사에 더 불만족하면 raglan sleeve 재킷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깨너비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재킷 소매형태 선호와 착용스타일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어깨너비에 대한 인지도의 평균으로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살펴보면 어깨너비에 대해 보통에 가깝게 인지한 경우 set in sleeve 재킷을 착용하였고, 그 중 어깨너비에 대한 인지도가 더 낮으면 raglan sleeve 재킷을 선호하지만 실제 착용으로 set in sleeve 재킷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어깨너비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한 증가경향을 나타낸 경우 raglan sleeve 재킷을 착용하였고, 그 중 어깨가 넓다고 인지하면 raglan sleeve 재킷을 선호하였고 실제 착용스타일로도 raglan sleeve 재킷을 선택하였다.

set in sleeve 재킷을 선호하는 경우 어깨가 다소 좁다고 인지하면, set in sleeve 재킷을 선호하지만 실제 착용으로는 raglan sleeve 재킷을 선택하였다. 반면 raglan sleeve 재킷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어깨가 다소 넓다고 인지하면, raglan sleeve 재킷을 선호·착용하였다.



<그림 3> 재킷 소매형태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 따른 어깨너비에 대한 인지도 차이.

따라서 어깨가 가장 좁다고 인지하면 set in sleeve 재킷을 선호하지만 raglan sleeve 재킷을 착용한 반면, 어깨가 가장 넓다고 인지하면 raglan sleeve 재킷을 선호하였고 착용스타일로도 raglan sleeve 재킷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5) 재킷길이에 대한 선호·착용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에 따라 재킷길이의 선호와 착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표 5>에서 살펴보면, 허리길이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힙너비 및 밑위길이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 재킷길이의 선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10>을 보면, 밑위길이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지도와 만족도 중 힙너비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재킷길이의 선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허리길이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힙너비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재킷길이 선호스타일간 차이를 살펴보면, 힙이 약간 넓다고 인지하면 힙이 덮히는 길이 재킷을 선호하였고, 힙이 다소 좁다고 인지하면 허리길이 재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리길이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재킷길이 선호와 착용 스타일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허리길이 재킷을 착용하는 경우 허리길이에 대해 평균 이하의 인지를 보였고, 그 중 허리가 더 짧다고 인지하면 허리와 힙 중간길이 재킷을 선호하지만 허리길이 재킷을 착용하였다. 허리길이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추세를 나타낸 경우 허리와 힙 중간길이 재킷을 착용하였고, 그 중 허리가 가장 길다고 인지하면 힙이 덮히는 길이 재킷을 선호하지만 허리와 힙 중간길이 재킷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길이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다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경우 힙이 덮히는 길이 재킷을 착용하였고, 그 중 허리가 가장 짧다고 인지하면 허리길이 재킷을 선호하지만 힙이 덮히는 길이 재킷을 착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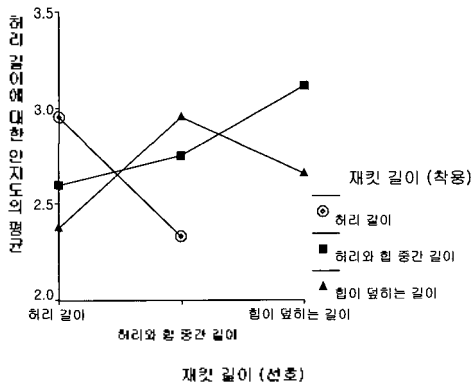
허리길이 재킷을 선호하는 경우 허리길이에 대해

〈표 10〉 재킷길이 선호·착용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Two-Way ANOVA

신체 부위별 항목	재킷길이	선호			착용			선×착
		M	S.D	F	M	S.D	F	
인지도	허리가 길다	허리길이	2.71	.91		2.83	.93	
		허리와 힙 중간길이	2.78	.96	.88	2.77	1.00	.54
		힙이 덮히는 길이	2.78	.91		2.77	.80	
	힙이 넓다	허리길이	3.30 B	1.02		3.03	.98	
		허리와 힙 중간길이	3.10 AB	1.00	4.31*	3.01	1.00	1.33
		힙이 덮히는 길이	3.32 A	1.05		3.26	1.11	
만족도	허리길이	허리길이	2.79	.87		2.83	.71	
		허리와 힙 중간길이	2.67	.88	2.41	2.70	.88	.37
		힙이 덮히는 길이	2.86	.83		2.78	.89	
	힙너비	허리길이	2.73	.84		2.76	.79	
		허리와 힙 중간길이	2.53	.97	1.42	2.59	.96	.08
		힙이 덮히는 길이	2.63	.93		2.56	.94	

*p<.05, 선×착 :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의 상호작용.

Duncan's test 결과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집단을 문자로 표시 (A>B).



〈그림 4〉 재킷길이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 따른 허리길이에 대한 인지도 차이.

평균 이하로 인지하였고, 그 중 허리가 가장 짧다고 인지하면 허리길이 재킷을 선호하지만 힙이 덮히는 길이 재킷을 착용하였다. 허리와 힙 중간길이 재킷을 선호하는 경우에도 허리길이에 대해 평균 이하의 인지도를 나타내었고, 그 중 허리가 가장 짧다고 인

지하면 허리와 힙 중간길이 재킷을 선호하지만 허리길이 재킷을 착용하였다. 힙이 덮히는 길이 재킷을 선호하는 경우 허리길이에 대한 인지도가 더 낮으면, 힙이 덮히는 길이 재킷을 선호·착용하였다.

따라서 허리가 가장 짧다고 인지하면 허리와 힙 중간길이 재킷을 선호하지만 착용스타일로 허리길이 재킷을 선택하였고, 허리가 가장 길다고 인지하면 힙이 덮히는 길이 재킷을 선호하지만 허리와 힙 중간길이 재킷을 착용하였다.

6) 재킷 허리형태에 대한 선호·착용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재킷 허리형태 선호와 착용에 대해 〈표 5〉의 결과에서는 허리둘레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 재킷 허리형태의 착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따라 허리둘레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각각 살펴본 결과 〈표 1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11〉에서 살펴보면 인지도와 만족도 중 허리둘레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각각에 따라 재킷 허리형태의 착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표 11〉 재킷 허리형태 선호·착용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Two-Way ANOVA

신체 부위별 항목		허리형태	선호			착용		
			M	S.D	F	M	S.D	F
인지도	허리가 굵다	벨트라인으로 절단된 형	2.90	1.11	.21	2.64	1.21	5.19 *
		벨트라인 없이 연결된 형	3.02	1.07		3.04	1.05	
만족도	허리둘레	벨트라인으로 절단된 형	2.44	1.09	3.19	2.81	1.01	5.43 *
		벨트라인 없이 연결된 형	2.64	1.01		2.53	1.05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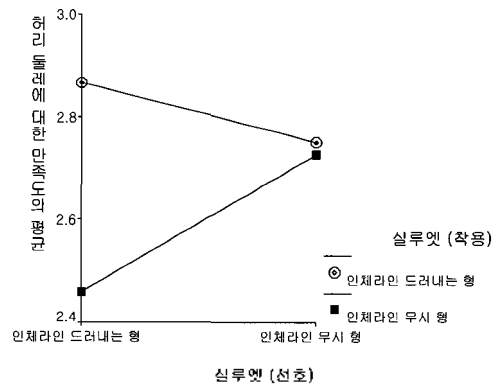
수 있다. 따라서 허리둘레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재킷 허리형태 착용스타일간의 차이에서는 허리가 다소 가늘다고 인지한 경우 허리부위에 벨트 라인으로 상·하가 절단된 스타일의 재킷을 착용하였다. 또한 허리둘레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착용스타일간의 차이에서는 허리둘레에 대해 평균 이하의 만족을 나타내었고, 그 중 허리둘레에 더 불만족하면 허리부위에 벨트라인 없이 상·하 연결된 스타일의 재킷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재킷 실루엣에 대한 선호·착용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재킷 실루엣의 선호와 착용에 대해 〈표 5〉에서 보면 허리둘레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서만 재킷 실루엣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을 〈표 12〉에서 보면 인지도와 만족도 중 허리둘레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재킷 실루엣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이 허리둘레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선호와 착용스타일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허리둘레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재킷 실루엣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 따른 허리둘레에 대한 만족도 차이.

〈표 12〉 재킷 실루엣 선호·착용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Two-Way ANOVA

신체 부위별 항목		실루엣	선호			착용			선×착 F
			M	S.D	F	M	S.D	F	
인지도	허리가 굵다	인체라인 드러내는 형	2.95	1.07	.00	2.87	1.07	3.36	.05
		인체라인 무시형	3.13	1.20		3.21	1.10		
만족도	허리둘레	인체라인 드러내는 형	2.58	1.04	.02	2.65	1.01	.00	4.36 *
		인체라인 무시형	2.53	1.08		2.39	1.10		

*p<.05, 선×착 :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의 상호작용.

〈그림 5〉를 보면 허리둘레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재킷 실루엣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는 모든 경우 허리둘레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이하였다. 허리둘레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우 인체라인을 드러내는 재킷을 착용하였고, 그 중 허리둘레에 더 불만족하면 인체라인을 무시하는 재킷을 선호하지만 실제 인체라인을 드러내는 재킷을 착용하였다. 허리둘레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한 증가경향을 보인 경우 인체라인을 무시하는 재킷을 착용하였고, 그 중 허리둘레에 더 만족하면 인체라인을 무시하는 재킷을 선호·착용하였다.

인체라인을 드러내는 재킷을 선호하는 경우 허리둘레에 더 만족하면, 인체라인을 드러내는 재킷을 선호하였고 착용스타일로도 인체라인을 드러내는 재킷을 선택하였다. 인체라인을 무시하는 재킷을 선호하는 경우 허리둘레에 대한 만족도가 거의 비슷하여 인체라인을 드러내는 재킷과 인체라인을 무시하는 재킷이 모두 착용되었으나, 그 중 만족도가 좀 더 높으면 인체라인을 무시하는 재킷을 선호하지만 인체라인을 드러내는 재킷을 착용하였다.

따라서 허리둘레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재킷 실루엣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는 허리둘레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이하였고, 그 중 허리둘레에 가장 불만족하면 인체라인을 드러내는 재킷을 선호하지만 인체라인을 무시하는 재킷을 착용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성인 여성의 정장 재킷에 대한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별로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인지도와 만족도 사이에 전반적으로 상·하반신의 둘레 항목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2.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의 상관성 분석결과 상·하반신의 둘레 및 너비 항목에 대해 크거나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한 반면, 허리길이 및 밑위길이를 제외한 길이 항목에서는 길다고 인지할수록 만족하였다.

3. 재킷 각 부위에 따른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재킷 칼라 유무에서는 목굵기 및 목길이에 가장 불만족하면 칼라 있는 재킷을 선호하지만 착용스타일로는 칼라 없는 재킷을 선택하였다. 재킷 칼라라벨길이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슴크기에 대해 보통 이하로 인지하였고, 그 중 가슴이 가장 작다고 인지하면 칼라라벨길이가 짧은 재킷을 착용하였다. 재킷 어깨너비에서는 어깨가 다소 넓다고 인지하면 자신의 실제 어깨너비보다 좁은 어깨너비 스타일의 재킷을 착용하였다. 재킷 소매형태에서는 어깨경사에 대해 평균 이하의 만족을 나타내었고, 그 중 어깨경사에 더 불만족하면 raglan sleeve 재킷을 착용하였으며, 어깨가 가장 좁다고 인지하면 set in sleeve 재킷을 선호하지만 실제 착용스타일로는 raglan sleeve 재킷을 선택하였다. 재킷 길이에서는 헐이 약간 넓다고 인지하면 헐이 덮히는 길이 재킷을 선호하였고, 허리가 다소 길다고 인지하면 헐이 덮히는 길이 재킷을 선호하지만 착용스타일로는 허리와 헐이 중간 길이 재킷을 선택하였다. 재킷 허리형태에서는 허리가 다소 가늘다고 인지하면 허리부위에 벨트라인으로 상·하 절단된 스타일의 재킷을 착용하였으며, 허리둘레에 평균 이하로 만족하였고, 그 중 허리둘레에 더 불만족하면 허리 부위에 벨트라인 없이 상·하 연결된 스타일의 재킷을 착용하였다. 재킷 실루엣에서는 허리둘레에 대해 모든 경우 보통 이하의 만족을 나타내었고, 그 중 허리둘레에 가장 불만족하면 인체라인을 드러내는 재킷을 선호하지만 착용스타일로는 인체라인을 무시하는 재킷을 선택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성인여성들은 정장 재킷을 착용할 때 선호하는 스타일을 실제 착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신의 신체 불만족 부위를 커버할 수 있는 스타일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음이 규명되었다. 따라서 신체 불만족 부위를 커버할 수 있는 의복설계 및 패턴제작, 그리고 디자인개발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위해, 성인 여성의 체형과 의복스타일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나명은 (1992). "의복 스타일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사성과 친숙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선영 (1997). "성인 여성의 신체이미지와 의복 착용 스타일: 비만 수준과 연령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우미, 고유미 (1994).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착의 행동과의 관계 연구: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민족문화예술연구소 논문집 3권.

박재경, 남윤자 (1999).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 행동과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권 8호.

이명희, 김현주 (1997). "의복스타일 이미지 선호와 자기이미지와와의 관계 연구." 복식 33권.

이선재 (1987). "한국여성의 가치관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권 1호.

이승희, 임숙자 (1998). "유행선도력에 따른 소비자의 추구혜택 및 의복스타일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7호.

임숙자 (1986). "의복행동과 지능, 사회 경제적 지위 및 체격과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권 2호.

장은영 (1993). "의류상품 이미지에 의한 의복 선택 모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경숙 (2002). "체형의식에 따른 의복관여 및 의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여자 중·고등학교생을 중심으로." 복식 52권 3호.

정옥임 (1993).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체형과 실제 체형과의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권 1호.

정재은 (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재은, 남윤자 (1999).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1992년도와 1997년도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3권 1호.

황진숙 (1997). "신체만족도와 기성복에 대한 만족의 상관관계 연구." 복식 34권.

황진숙 (1998).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권 3호.

Cash, T. F., Winstead, B. M. and Janda, L. H. (1986). "The great american shape up." *Psychology Today* Vol. 20, No. 4.

Danielson, D. R. (1989). "The changing figure ideal in fashion illustr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8, No. 1.

Fallon, A. E. and Rozin, P. (1990).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body shap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94.

Greenwood (1978). *Fashion and marketing*. New York: Macmillan.

Kefgen, M. and Touchie-Specht, P. (198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4th ed. New York: Macmillan.

Kwan, Y. H. and Parham, E. S. (1994). "Effects of state of fatness perception on weight conscious women's clothing practic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2, No. 4.

LaBat, K. L. and Delong, M. R.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8, No. 2.

Mable, H. M., Balance, W. and Galgan, R. (1986). "Body image distortion and dis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63.

Winakor and Navarro (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s to women's clothing styl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5, No. 2.